

'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말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관련 시장 규모도 4조원에 육박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함께 사는 동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로 가족처럼 여겨지고 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를 겪던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례도 늘었다. 때문에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더욱 커진 상태다. 그러나 이처럼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고 시장이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동물 학대와 유기 문제가 끊이지 않는 등 반려동물 문화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는 데 발맞춰 반려동물 문화도 함께 성장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반려동물의 상황 및 반려동물 문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 3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 양육...유기·학대는 여전히

## 반려가구 600만 시대

말 그대로 반려동물 전성시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총 604만 가구다. 이는 2019년(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4만 가구, 서울 131만 가구, 인천 34만 가구 등 수도권에 327만 가구가 몰려 있어 전체 반려 가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경기지역에만 전국의 27.1%에 달하는 반려 가구가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로는 개를 기르는 가구가 80.7%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이도 25.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려견 가구에서는 1가구당 평균 1.2마리의 반려견을 기르고 있으며, 반려묘의 경우 1가구당 평균 1.4마리를 기르고 있다.

이를 통해 추산해보면 한국 전체 반려견은 586만 마리, 전체 반려묘는 211만 마리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에 208만 마리의 반려견과 33만 마리의 반려묘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펫케어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했다.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이 발간한 '성장하는 펫케어 산업 최신 트렌드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자료에서 우리나라 펫케어 시장 규모가 2020년 17억9200만 달러로, 2016년 이후 5년동안 연평균 8.4%씩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처럼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고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양육 문화는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반복되는 동물 학대 문제와 적지 않은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동물 학대 반복...지난해에만 유기·유실동물 2만3000여마리 나와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여름휴가...유기동물 증가 가능성도 제기



이를 방증해준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소된 인원은 총 565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225명과 비교하면 2배를 훨씬 웃돌 정도로 늘어났다.

지난 4월 경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20

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와 아라바이트 장소에서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해서 죽인 혐의를 받는다.

유기동물도 계속 늘고 있다. 동물구조119가 국립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발표한 '2020 유기동물 통계'를 보면 국내 유기동물 숫자는 코로나19 이전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2016년 2만1679마리였던 유기동물 수가 2017년 2만2917마리, 2018년 2만5681마리, 2019년 2만7931마리로 점차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2만6981마리에서 2021년 2만3832건으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유기동물 수는 늘어나고 있다. 국립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보면 거리두기가 해제된 시점인 4월 국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1788건으로, 직전 달(1523건)에 비해 17.3%가량 늘었으며, 5월에는 2245건으로 4월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4~5월부터 유기동물 숫자가 늘어나는 점을 볼 때 거리두기 영향이 무조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오는 7~8월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여름휴가를 기점으로 유기동물 수가 더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가 유기동물 증가 원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계속된 유기동물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 고민없이 들인 애견 길거리에 유기...입양문화 바뀌야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후 입양 등 문화 확산 불구 정착은 '아직'

지자체도 입양 문화 바꾸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나서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수 년째 동물보호협회에서 사용하는 대표 슬로건 중 하나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반려동물 입양 방법은 '펫숍'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골라서 데려오는 방식이다.

별다른 절차 없이 말 그대로 상품처럼 동물을 쉽게 살 수 있다 보니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 파양 또는 유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반려동물 입양 방식부터 바뀌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목소리가 높다. 손쉽게 살 수 있는 문화 대신 보호소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유기동물 봉사가 활성화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버림받은 아이들을 구조한 동물보호소 등을 찾아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법을 알아가고, 이들과 교감하는 법을 익힌 뒤 보호소에서 아이들 입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코리아독스(KIDS) 레인보우 센터 역시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수 년째 갈 곳을 잃은 반려동물들을 구조해 돌보고 있는 KIDS 레인보우 센터에는 현재 300여 마리의 개들이 살고 있다. 개 농장과 번식장, 애니멀 호텔 등 여러 곳에서 구조된 아이들이다.

지난 3월 말에는 성대수술을 받아 제대로 짚지도 못하는 상태로 용인시내 버려진 사무실 안 뜰에 갇혀있는 코카 스파니엘종 개 20여 마리를 구해 치료·보호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도 시보호소 안락사 명단에 오른 아이들을 구조해 오기도 했다.

이렇게 구조된 개들은 중대형견과 소형견 등 크기가 동물의 성격 등에 따라 머무는 곳을 달리하며 보살핌을 받는다. 동물병원 등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고 중성화 수술한 뒤, 동물들이 버려지며 받은 상처가 아물고 잃어버린 사회성 등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구조된 개들이 머무는 쉼터 내 공간을 더욱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들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봉사자들 역시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 어떻게 이들을 관리해야 할지,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배운다.

해당 쉼터를 자주 찾는다. 김모(26)씨는 "강아지를 데려오고 싶지만, 집안 사정상 쉽지 않고, 또 유기동물이 많다는 뉴스 등을 접하면서 도움 방법을 없을까 하다가 유기견 봉사를 하게 됐다"면서 "찾아올 때마다 힐링되는 기분이고 사진을 보고 지인들도 관심을 가져주고 입양이 가능한지 묻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독스 관계자는 "펫로스증후군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속해서 봉사를 와서 위안을 얻다가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오랜 기간 봉사를 오던 분이 유기견 입시 보호를 맡아주다가 입양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중대형견의 경우 다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주로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고 있으며 국내 입양을 보낼 때는 입양 후에도 계속 소식을 전달하며 모니터링이 가능한 조건 등을 달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모두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인식을 벗어나 이 아이들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도 유기동물을 돌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운 문화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설 보호소가 모든 유기동물을 모두 떠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호소를 역시 자원봉사와 유기동물을 위한 물품 등의 지원이 계속돼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직도 입양이라는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널리 정착된 상황은 아닌 만큼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입양 문화 개선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입양 문화를 홍보하고 정착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도는 길거리나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된 뒤 동물보호센터 공고 기간이 지나도 가족을 찾지 못하는 반려동물을 2차 보호소 역할을 하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로 이동시킨다.

여기서 3주가량 기본 행동교육을 받은 뒤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구충·예방접종 등을 거쳐 입양센터에서 새 가족을 찾도록 돕고 있다. 입양 절차도 철저하다. 입양 전 교육을 수료해야만 입양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족 환경 등도 충분히 검토 관계자는 "유기동물 수도 줄이고, 안락사도 감소시키면서 생명존중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 취지"라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성숙한 반려문화, 결국 '동물권' 확대 필수

"동물은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됐으나 논의 안돼

동물학대 처벌 확대 및 생명존중 교육 확대 필요성도 제기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양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계속되는 동물 학대, 유기 문제로 인한 반려동물 보호 및 존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동물에게도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로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것이 당장 반려동물 관련 모든 문제를 해소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8개월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는 국회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해 동의율 100%를 받아내기도 했다.

신주운 카라 정책기획팀장은 "해당 법 개정은 필요하다. 그동안 동물을 물건으로밖에 보지 않으니 사회적으로 (동물권 보호) 인식 변화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학대 등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해당 법은 동물 생산과 판매, 유기, 학대 등에 여러 영향을 주는 만큼 민법 개정을 통해 다른 관련 법령들도 차례대로 개선해갈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입양할 때 입양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것도 유기동물 문제 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입양가는 기간까지 모두 추적 가능한 이력제를 수립해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2월에 이어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아직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도는 낮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동물

학대법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입양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동물 학대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좀 더 높이고 처벌 수위 등을 높여 학대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더 나아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동물들을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존중할 수 있도록 동물 친화교육 나아가 생명존중을 기본 인식교육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b>호남신문</b>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우천로213스카이랜드 309호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b> 편집국장직무대리 서 선 옥
	<b>동부취재본부</b>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b>서우취재본부</b>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b>기사제보</b> (062) 222-2580 <b>광고직통</b> (062) 228-2580 <b>팩스</b>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